

	<b>독 일 ( 프 랑 크 푸 르 트 ) 사 무 소</b> <b>해외동향보고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훈희 소장
		일 시	2024. 2.

### CEPA Insight

- 독일(유럽)시장 탄소중립 기조 이행 불안정성에 대한 예의주시 필요
- 도내 투자기업 인피니온 천안 공장 매각에 따른 관계 정책 영향 검토

#### □ EU 공급망실사법 승인 무산

- 기업에 인권·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의 공급망실사법(CSDDD)이 EU 이사회 승인 투표에서 부결(2.28.)
  - 전체 회원국의 55% 이상(15개국 이상), EU 전체 인구의 65% 이상 찬성이 필요하나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등 14개국이 기권 또는 반대
-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CSDDD는 기업이 전 공급망에 걸쳐 강제노동이나 삼립벌채 등 인권과 환경관련 실사 및 공시 의무를 지우는 지침('22. 2. 제안)으로 현재 잠정 합의안에 대한 EU 의사회 및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
  - 규정 위반 시 연 매출액의 최대 5%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한국을 비롯해 유럽에 진출한 제3국 기업도 규제 대상
- 환경·인권 단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원안 통과를 주장하지만, 기업들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
-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기권·반대 회원국이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해 유럽의회와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법안의 완화 가능성도 예측

#### □ 유럽 내 내연차 전면금지 이행 불확실성 가중

- EU 집행위는 단계적 내연기관 폐지 결정의 '26년 재검토 강조
  - '22년 EU는 '35년 이후 내연차 신규등록 금지법안에 합의했으나, 합의서에는 '26년에 이에 대해 검토를 시행할 것이라는 조항 명시

- 정당 차원에서도 동 결정에 대한 전면 취소나 기후친화적 연료만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금지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 등 추진 예정
  - 현재, 독일 완성차들은 전기차 전환이 느린 편이며, 내연기관 차량 호황
    - '23년 가솔린 차량 신규등록은 978,660대(전년대비 +13.3%), 34.4% 점유율
    - '23년 디젤 차량 신규등록은 486,581대(전년대비 +3.0%), 17.1% 점유율
  - '24년 독일시장 전망에서 내연차는 1%, 전기차는 14% 감소 예상
    - 전기차 구매보너스가 폐지('23.12.), 전기차에 대한 확산 및 모델 부족 등
- \* 출처 : Tagesschau <https://www.tagesschau.de/wirtschaft/energie/elektromobilitaet-vda-100.html>

## □ 2024년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고전 지속 전망

- 경영 컨설팅 기업 베릴스(Berylls)는 '24년 자동차 부품업체 분석결과 발표
  - 자동차 부품 업황은 '23. 4분기에 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
  - 금리상승 및 高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
  - 전기차 가격 전쟁이 시작되며 업계 매출과 마진도 위협
  - 감원 및 파산은 '23년에도 부품업체 업계의 주요 의제가 될 것
- '24년 상반기 부품업체에게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주제는
  - ① 중국 리스크 상승, ② 동유럽 지정학적 중요성, ③ 북아프리카 입지 부상

- ① 위안화 가치 하락, 현지 업체 생산증가 둔화, EU-중국 간 징벌적 관세 등 영향
- ② 동유럽 국가 실업률 해소 등 임금 증가, 정치적 불안으로 선호도 감소
- ③ 낮은 세금·보조금·저임금 등으로 북아프리카(모로코·튀니지 등) 안정적 투자처 부상

\* 출처 : Automobilwoche <https://www.automobilwoche.de/bc-online/standortwahl-fur-autozulieferer-wird-die-wahl-des-richtigen-werkeverbundes-immer>

## □ 독일 태양광 기업 위기 직면

- 독일의 태양광 대표기업들은 생산 축소 및 기술개발 투자 중단 결정
  - Hecker Solar·Meyer Burger·Solarwatt 등은 50% 이상의 가격 인하 조치를 단행함에도 불구하고, 판매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

- 태양광 업계관계자의 존폐위기 호소 속에 독일의 핵심 신에너지 생산기반이 축소될 경우 유럽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 심화 예상
  - 저렴한 중국산 모듈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검토 중이나
    - 정부 연정도 영구 보조금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어 지원계획은 미정
  - 한편, 유럽태양광산업협회는 EU에 보호무역 조치 도입을 촉구
    -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은 12센트/1와트 정도이나 유럽산 가격은 20센트/1와트 선으로 현재 재고는 1.5억개 이상으로 예측
- \* 출처 : Handelsblatt 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/unternehmen/energie/energie-das-endspiel-um-die-solar-industrie-in-deutschland-hat-begonnen-01/100011224.html>)

## □ 에너지 위기 심화로 탈원전 정책 반대 목소리

- 국제에너지기구(IEA) 사무총장, 독일 탈원전 정책을 '역사적인 실수'라고 표현
    - 당시 독일의 에너지 전환계획의 중심은 러시아산 가스로,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강행
    - '21년까지 유럽의 가스 화력 발전소의 전력생산 비용은 원자력 발전소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, '22년 러-우 전쟁 후 가격 폭등
    - 대체제인 미국산 가스는 운송 시 온실가스 발생으로 美정부가 수출 중단
  - 새로운 대안인 수소 전력도 비용면에서 원자력 대체제로 부적합
    - IEA에 따르면, 원전으로 생산되는 전기가격은 30~50달러/1MWh 선
    - 수소 전력 생산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은 가스의 3배 이상
  - 야당인 기민당은 전력확보를 위해 새로운 원전기술 개발 지지 입장
    - 45세대 원전과 세계 최초의 핵융합 발전소 개발에 대한 의지 표명
- \* 출처 : Handelsblatt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/meinung/kolumnen/gastkommentar-der-historische-fehler-atomausstieg-kann-korrigiert-werden/100013633.html>)

## □ (도내 투자기업) 인피니온 동향

### ① 천안 공장, 대만 ASE에 매각 결정

- ASE에 백엔드 제조시설을 매각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 예정

- 천안 공장과 필리핀 카비테 공장 매각계약을 체결('24. 2. 22. 발표)
- \* ASE : 반도체 및 전자산업 아웃소싱 반도체 조립·테스트 서비스 제공업체
- 거래완료 시 ASE는 인력(약 1,200명)을 포함하여 제조시설 전체를 인수하게 되며, 제품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 공급계약도 체결
- 인피니온은 자사주 투자도 계획하고 있으며, 최대 700만 주의 자사주 매입으로 약 3억 유로 조달 희망('24. 2. 26. ~ 3. 28.)
- 도와 인피니온은 충남지식산업센터(천안 소재) 내 '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센터 공동 설치·운영(M.O.U) 등 협력이 활발한 기업으로 지속적인 동향 파악 및 정책 영향성 검토 필요

## ② 경기 침체로 금년도 매출목표 하향 조정

- '23년 기록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년 매출목표를 '23. 11월 목표 설정 시 대비 10억 유로 낮아진 160억 유로로 하향
  - 매출 하락과 부정적 상반기 시장 전망으로 전략 수정 불가피
  - 지난 분기 총매출은 전년대비 6% 감소한 37억 유로를 기록
- 인피니언 측은 반등을 위해 진행 중인 협력 프로젝트 확대 전망
  - 공급업체 Wolfspeed 협력 사업, 건설 중인 드레스덴 공장 확장 등
- 한편, 인피니온의 주가는 경쟁사 대비 저조한 수익성과 중국발 리스크 증가로 인해 지난 1년 간 5% 하락
  - '23년 중국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4% 하락한 25%를 기록했으나,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위험 수준으로 이중 리스크 전략이 중요한 상황
- \* 출처 : Elektronikpraxis (<https://www.elektronikpraxis.de/infineon-verkauft-zwei-backend-fertigungsstaetten-an-ase-a-a09bc6865f7a77d26f8d0babff5610c2/>) 등